

고교학점제 빈틈, 현장에서 채운다

전북교육청, 정책 간담회 열고 학교 간 협력제 구축 등 개선 방안 논의... 수요자 중심 정책 수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전주 청동북카페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실제 학교 운영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중앙여자고, 서립고, 무주고, 전주대사범대학부설고에서 교원들이 참여했다.

더불어 학생과 학부모 대표도 참여해 각자의 입장에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고교학점제 운영의 어려움 △학교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 △학생 선택권 확대 방안 등이다.

특히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을 비롯해 운영임 교육국장, 최은이 중등교육과장 등 정책 담당자와 학교 구성원들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에 참여 교원들은 △나이스 출결관리 업무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업무 △공강시간 발생에 따른 학생 관리 업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과다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학생은 “내가 배우고 싶은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 수업이 더 재미있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8일 전주 청동북카페에서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고교학점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앞으로 더 다양한 과목이 개설되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혔다.

또 학부모는 “아이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책임감 있게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고교학점제가 자기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되

는 것 같다”며 “다만 학부모도 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지속적인 안내와 소통이 있었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정책을 수립하는 입장에서는 현장의 목소리

를 듣는게 가장 중요하다.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참여해 의미 있는 정책 간담회가 됐다”며 “고교학점제가 학생 중심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전주대 산학협력단, 전력변환 기술혁신 온오프 세미나 성료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지난 6~8일 3일간 군산 새만금에너지융복합단지 종합지원센터에서 ‘전력변환 기술혁신 온·오프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호남권 에너지공유대학 인력양성사업과 대학특성화 상생사업(과제책임자 김은수 교수)의 일환으로 대학, 국책연구소, 기업 등 산학연 전문가를 초청해 전력변환 기술혁신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발표를 했다.

세미나 첫날인 6일에는 군산 융복합단지 내 공공연구시설과 기업 현장을 직접 견학하며 전력변환 기술의 연구·산업 현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7일과 8일에는 한국전기연구원, 순천대학교, 에이스웍스(주), 전북대학교, 원광대학교, 전북테크노파크 등 산학연 전문가 6명이 전력변환 관련 최신 동향과 혁신 기술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전북·광주·전남 등 호남권 8개 참여대학 교수와 학생, 컨소시엄 참여기관 임직원이 온라인으로도 동시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소통이 이어졌다.

정읍교육지원청 주최 지역아동센터 명랑운동회

정읍교육지원청(교육장 최용훈)이 주최하고 정읍시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주관한 ‘2025년 정읍시 지역아동센터 명랑운동회’가 지난 7일, 국민체육센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우리 모두 챔피언!”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 중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향상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간의 협력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존중의 돌봄 체계 기반을 강화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는 정읍시 관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650여명을 비롯해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 총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식전 공연과 기념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놀이와 체육 중심의 명랑운동회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이번 운동회는 승부보다 참여와 협동에 중점을 두고, 아동의 발달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건강운동관리사 다수 합격자 배출 ‘주목’

전주기전대학 운동재활과가 건강운동관리사 국가자격시험에서 다수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21년부터 현재까지 총 12명이 합격했다. 이 중 8명은 은퇴한 축구부 학생선수 출신이다. 특히 운동선수 출신이 일반 학생 신분으로 전환해 자격증을 취득한 사례는 전국적으로도 드물다.

이종민 교수(운동재활과)는 “학생

전주기전대 운동재활과 12명 중 8명이 학생선수 출신

선수 출신들이 짧은 기간 집중 훈련과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시험에 도전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며 “축구부 학생선수들의 성실함과 목표 지향성을 분석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전략을 제공한 것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김성민 학생은 “은퇴 후 새로운 목표로 건강운동관리사 시험에 도전했다”며 “처음에는 공부 부담이 컸지만, 교수님의 체계적인 지도와 꾸준한 노력 덕분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건강운동관리사는 병원, 피트니스 센터, 재활기관, 공공체육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맞춤형 운동 처방과 지도를 담당하는 국가자격 직종이다.

전북교육청 ‘8월 8일, 개인정보 파기의 날’

전 직원 대상 자율 파기 독려... 유·노출 사고 예방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8월 8일을 ‘개인정보 파기의 날’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하거나 목적이 달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파기함으로써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정보 보호 인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특히 ‘빨리 파기!’의 의미를 담아 8월 8일로 지정함으로써 직원들의 참여

도를 높이고, 개인정보 보호 실천의 중요성을 전달하고자 기획됐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파기 관리 매뉴얼을 사전에 안내하고, 복문 현관 및 별관 고객지원실 앞에 친환경 홍보 배너를 설치하는 등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주요 내용은 △업무 목적이 만료된 개인정보 파일 일제 파기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의 시스템상 삭제 △종이 문서·이동식 저장장치에 보

관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폐기 등이다.

파기 대상은 전자파일뿐만 아니라 종이문서, 업무용 PC 및 이동식 저장장치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정보로 매뉴얼에 따라 복구 불가능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폐기하도록 했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개인정보 파기의 날’ 운영을 통해 개인정보 관리의 책임성과 실천력을 높이고,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상시 점검·삭제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불꽃으로 피어나다’

전주대, 교내 소리연서 ‘낙화의 밤’ 행사 개최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지난 7일 교내 소리연(연못)에서 ‘불꽃으로 피어나는 전주, 낙화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주대학교와 전북 지역 기업인들이 함께 기획했으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불꽃놀이인 ‘낙화놀이’를 주제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문화적 울림을 전했다.

‘낙화놀이’는 화약 대신 숯가루가 한지에 매달린 봉에서 흘러내리며 밤하늘에 꽃비처럼 떨어지는 우리 고유의 불꽃놀이로, 역사적으로 전국 각지에서 전승돼 왔으나 현재는 함안, 무주 등 일부 지역에서만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전주대가 올해 처음 이 전통문화를 직접 재현, 문화유산의 계승



지난 7일 전주대학교 교내 소리연(연못)에서 ‘불꽃으로 피어나는 전주, 낙화의 밤’ 행사가 열린 가운데, 학생들과 시민들이 낙화놀이를 즐기고 있다.

과 현대적 재해석에 나섰다.

특히, 화재안전공학 전문가 김동현 교수(소방안전공학과)와 학생들이 주축이 돼 전주 한지로 직접 제작한 500개의 낙화봉을 선보였다.

김 교수는 “이번 행사가 단순히 불

거리에서 그치지 않고, 전통과 과학,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 자산으로 기억될 수 있길 바란다”며 “학생과 지역이 만든 따뜻한 불꽃이 많은 시민들에게 감동이 전해졌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석대, 대학혁신지원 성과평가 ‘S등급’ 얻어

SI 기반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서 인정받아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가 교육부의 2025년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교육혁신 성과 부문 최고 등급인 ‘S등급’을 획득했다.

전국 138개 일반재정지원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평가는 대학의 교육혁신 추진 실적과 성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르면 이번 평가에서 우석대는 학사조직 개편과 융합교육 강화, AI 기반 학생 지원체계 고도화 등에서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단과대학 통폐합을 통해 ‘휴먼

테크/수소테크(2H-Tech) 융합대학’을 신설하고, 자율전공학부를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노준 총장은 “이번 성과는 급변하는 교육환경 속에서도 혁신을 주도하고자 한 전 구성원의 열정이 만든 결과”라며 “앞으로도 끊임 없이 도전하고 변화를 선도하는 ‘교육혁신 중심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양자산업 분야 입지 선도한다

김희대 교수팀, 자가발전 가능 IoT 센서 플랫폼 실증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양자산업 분야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게 됐다.

이에 따르면 반도체과학기술학과 김희대 교수(반도체과학기술학과·사진)가 양자기술 기반 차세대 에너지 하베스팅 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주로 전북 지역에 실질적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양자센서, 양자광원 등 후속 원천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대 교수는 “양자산업을 이끌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주로 전북 지역에 실질적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양자센서, 양자광원 등 후속 원천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희대 교수는 “양자산업을 이끌 국가 연구개발사업 수주로 전북 지역에 실질적 양자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양자센서, 양자광원 등 후속 원천기술 사업화 및 기술이전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교육대학교는 지난 7일 본교 도서관 북카페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공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전주교육대학교 제공)

전주교대, 임용 준비 재학생 ‘열공 격려’

전주교육대학교(총장 박병춘)는 지난 7일 본교 도서관 북카페에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열공 격려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방학 중에도 임용시험을 위해 공부에 매진하는 재학생을 격려하는 차원으로, 아이스크림 제공, 소풍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4학년 학생은 “격려 행사가 단순 간식 제공을 넘어 공부

외적으로도 심리적 지지를 받는 느낌이 들어 감사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병춘 총장은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도 수험 준비에 여념이 없는 학생들을 위해 준비한 행사인 만큼 지친 마음을 환기시키고, 남은 시간 후회없이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 초·중·고교원 임용시험은 1차 11월 8일, 2차 2026년 1월 7~9일 실시될 예정이다. /장은성 기자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시범경연 ‘준우승’

전주비전대 태권도시범단

전주비전대학교 태권도시범단이 최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18회 세계태권도문화엑스포 시범경연 부문에서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전주비전대 시범단은 ‘훈민정음(訓民正音)’을 주제로 한 창작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심사위원과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 공연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 창제 과정을 태권도의 역동성과 예술성으로 재해석한 무대로, 문자에 담긴 철학과 소리를 격파, 고난도 공중기술, 군무 등으로 표현했다.



특히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을 상징적으로 형상화하며, 한글의 우수성과 민족 정체성을 세계에 알렸다.

한편 전주비전대 태권도체육학과는 실기 중심 교육은 물론,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을 겸비한 태권도 전문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 /장은성 기자